

전북도, 새만금 투자 유치 활동 대대적 전개

일본 화학기업·국내 자동차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확보, 각종 인센티브 등 적극 홍보

전북도는 10월중에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먼저, 10월 9~12일까지(4일간) 일본 도쿄에 있는 화학기업 및 투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 이번 일본 투자유치 활동은 대한무역진흥공사(코트라)의 지자체 투자유치 사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중국시장을 겨냥하는 일본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새만금 임대용지 확보와 외투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 등을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코트라 도쿄무역관이 사전 협의한 타깃기업과 한국 투자에 관심이 있는 기업, 투자회사들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면담 방식의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17~19일까지(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2018 한국자동차산업전시회'에 새만금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부스 운영 기업을 방문하여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2018 한국자동차산업전시회(KOAA SHOW, 코아쇼)는 국내외 350여개 자동차기업 관련 기업 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자동차산업 국제전시회이다. 코아쇼는 지난해 행사부터 코트라 주관 국제수송기계부품산업전시회(GIT)와 통합 개최되어 참관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동차 부품, 소재, 검사장비, 기계 설비, 액세서리, 튜닝 등 자동차 산업 관련 500여개의 전시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이낙연 총리와 신임 장관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이 총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 총리 “한반도 평화로 가는 ‘역사적 기회’… 후속조치 추진”

“국회, 판문점선언·한미FTA개정안 등 한반도 평화 뒷받침” 요청
“백남기·쌍용·용산사건 사과… 공권력 사용 문화·제도 개선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지금 한반도에는 평화의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역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한 뒤, “평안공동선언과 한미정상회담 결과 가운데 내각이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차분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일부 오해나 왜곡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정확하고 알기 쉬운 설명을 제 때에 국민에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에는 “판문점선언 및 한미 FTA 개정안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과정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경제발전에 매진하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문제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에 전달됐고, 한미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에는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계속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 등이 언급돼 향후 북미협상과 북미정상회담을 더욱 주목받게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독일의 철혈제상 비스마르크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정치가의 책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세계의 지도자들도 이 기회를 붙잡아 살리는 데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지난 25일인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2주기를 언급하며 당시 공권력 남용을 사과하고,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의 권고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조사위는 백 농민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권고안을 내놨다”며 “이와 함께 쌍용자동차 노조 진상사건, 용산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권력은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업하던 노동자 이주대책을 요구하던 경찰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에 전달됐고, 한미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에는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계속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 등이 언급돼 향후 북미협상과 북미정상회담을 더욱 주목받게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록 과거 정부에서 빚어졌지만, 잘못되고 불행한 일을 시

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모든 피해자와 국민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생긴 경찰 공무원의 회생에 대해서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조사위는 공권력 과잉 행사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취하 등을 권고했다”며 “정부는 이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난날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제도·정책·문화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위의 권고 하나, 하나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국민께 설명하고 확실하게 실천하겠다”며 “이제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공권력을 바로 세워, 불법은 없애면서 국민은 보호하는 ‘국민의 경찰’, ‘선진 경찰’로 거듭나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추석 연휴기간 안전사고에 대해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피해는 예년에 비해 줄었다”며 “베르스 확진환자 한 분이 완치됐고 의심환자도 모두 음성화된 판정을 받아서 연휴 직전에 메르스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순창군 쉐럴랜드 관광휴양촌 새단장

이색홍보판으로 관광객·교육생에게 눈길 끌어

순창군의 힐링관광지로 손꼽힐 쉐럴랜드 조성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최근 이색홍보판 설치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쉐럴랜드(SHELL Surchang Health Institute Longevity)랜드 조성사업은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일원에 2019년까지 80억원을 투자해 치유관련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워터공원과 무궁화 동산 등 경관조성을 위해 수목과 산수국 1300주를 비롯한 다양한 치유 식물을 식재했으며 시냇물 세족장 등을 갖춘 산책로 등을 조성했다. 최근 군은 사업비 2억여원을 투입해 쉐럴랜드 간판, 십자형 조형물, 주변 이정표 정비와 마치고 관광객을 준비에 한창이다. 오는 10월에는 힐링숙박시설인 방갈로 15동의 준공을 앞두고 있어, 관광객과 교육생 유치를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는 시계광장과 수변광장 /순창=이양원기자

전북체육회 “전국체전 마무리작업 한창”... 성공 다짐

전북도 일원에서 개최하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공 개최를 위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와 전국체전준비단 등은 이번 전국체전을 문화와 예술 스포츠가 함께 어우러지는 국민 대통합 한마당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막판 사활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27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한 치의 실수 없이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경기장 시설 점검과 선수들 컨디션(부상) 관리, 자원봉사자 운영 등 막판 점검을 벌이고 있다. 아직까지 수영과 테니스 등 일부 종목이 열리는 경기장의 경우 개보수가 진행중이지만 대회 전까지는 모두 완료 예정이어서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포츠과학센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과 현장 피드백으로 단점을 보완하고 부상장지에 주력하고 있다. 대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도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익산시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약 2200명이 이번 체전에 참여한다. /뉴시스

전북국제교류센터, 정부 정책개발원조 국가공모사업 선정

전북도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인 삼각농정 모델이 정부의 정책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선정됐다. 27일 전북국제교류센터(센터장 이영호)는 외교부(KOICA)의 ODA 사업에 공모한 전북도-네팔 농촌 역량강화 사업이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 공동 기획·발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40여억 원 상당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네팔 카트만두 대학교 및 풀라링 병원과 협력해 삼각농정이 함께하는 농촌 지역 개발과 전북의 전문가 및 인력 파견 등을 추진하게 된다. /김진성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